

미국면

세계의 면화를 말할 때, 미국면을 제외하고선 말이 성립되지 않는다. 누가 뭐라 해도 미국은 면화의 대국이며, 우리나라는 특히 미국면과는 대단히 깊은 인연을 갖고 있다.

현재 미국에서의 면화생산이 중국이나 인도에 밀려 있다고 하지만 면화의 수출량에서는 단연 세계 제일이다. 미국에서 주로 생산되는 육지면(Upland)은 원래 멕시코 등 중남미 지역의 야생종을 미국에서 품질 개량하여 만들어 놓은 품종이다. 현재는 세계에서 생산되고 있는 면화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할 정도의 품종이 이 육지면이며, 품질이 좋고 토지 적응성이 높아서 재배하기가 쉬운 품종이다. 보통 미국면 그러면 이 품종의 것을 말하는 것이지만, 미국에서는 이 외에도 50종류 이상의 다양한 품종의 면화가 재배되고 있어 용도별 원료 선택의 폭이 넓다.

면화의 재배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많이 받는 농업 분야로서 생산량이나 품질이 변하기 쉽지만, 미국의 면화 생산 내역은 이런 점에서 인증된 품질의 면화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다.

미국 면화 생산지는 동부의 노스캐롤라이나 주에서부터 서부의 캘리포니아 주까지 13개 주에 걸치는 광범위한 지대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이 지대를 코튼 벨트(cotton belt)라고 한다. 이 지역은 서리가 잘 내리지 않고 연간 600-1200 mm 정도의 강수량 지대로서 습기가 적은 반 건조지대로 안정적인 품질의 면화 재배에 대단히 좋은 조건의 땅이다.

캘리포니아에서 생산되는 샌호킨 면은 육지면 중에서도 품질 수준이 가장 높은 면화로서 고급 니트 제품에 사용되며, 고급 품종 면인 수피마(supima) 면은 급격한 수요의 증가에 따라 최근 생산량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

산 호아킨 면화를 생산하는 산 호아킨 밸리(San Joaquin Valley)는 샌프란시스코와 로스앤젤레스를 연결하는 선상에서 조금 내륙 쪽으로 들어간 지역으로 산에서 눈이 녹아내리는 물을 이용하여 대규모로 농토를 개발한 강수량이 아주 적은 지역이다.

미국의 면화 생산은 그 역사가 길고 기술개발과 면화 정책에 역점을 두어왔다. 면화 생산

농가는 눈앞의 이익만을 추구하지 않고 농지의 지질이나 환경을 보호하려는 노력이 그 어느 나라보다도 강하며, 전 미국 면화평의회를 중심으로 화학 농약을 가급적 억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하나로 등장한 것이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유기면 (Organic Cotton) 생산의 본보기가 된 것이다. 또한 한정된 색상이긴 하지만 천연적인 유색면을 개발해 놓은 곳도 역시 미국이다. ♣(공석봉)

